금주의 법구–〈아함경〉
역경에 끄달리지 말고
순경에도 끄달라지 말라.
만물에 끝없는 축복을 주어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54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6월 22일) 2019년 7월 24일 수요일

연등회 참가 외국인 템플스테이로 사후관리

국제포교사회, 외국인 참가자 템플스테이 '인기'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자원봉사자로 참여했고, 불교에 대한 인상이 깊었습니다. 다시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하게 되니 참 좋네요." 〈데이비드(캐나다)〉

불교계가 자랑하는 한국 대표 문화축제인 연등회. 여기에 참여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불교문화 체험 네트워크가 추진돼 눈길을 끈다. 밖으로 나가는 국제포교뿐만 아니라 한국을 찾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포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김성림)는 최근 연등회 외국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템플스테이를 시작했다. 6월 14일에는 연등회 내빈으로 참관한 벨기에 대사를 비롯한 벨기에 대사관 직원들이 진관사에서 1일간 템플라이프를 진행한데 이어 7월 6~8일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로 참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화 연등국제선원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이번 두 차례의 템플스테이는 연등회 참여 후 불교문화를 알고 싶다는 요청이 이어져 기획됐다.

이병진 국제포교사회 홍보부장은 "국제포교사회는 연등회 서포터즈 교육의 실무 진행과 연등회 제등행렬에서 내빈관람석 안내 등을 맡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참가한 외국인 관계자들과 행사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던 상황"이라며 "가장 먼저 연등회 내빈으로 참여했던 벨기에 대사를 비롯해 대사관 직원들의 요청이 있었다. 행사 후 반향이 좋아 서포터즈들에게 이메일로 추가 행사 의향을 타진했는데, 반응이 뜨거웠다. 미국대사관 직원 등 외국인 연등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차기 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등회는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발돋움한 상태다. 연등회 보존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참가인원만 50만 명에 이른다. 늘어나는 참가자 수만큼 외국에서의 참가도 늘고 있다. 매년 정해진 인원을 뽑는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의 경우 출신 국가가 증가하고 있어 올해 역대 최다인 26개국을 기록했다. 올해에는 2000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관람뿐만 아니라 연등을 들고 행렬에 직접 참가하기도 했다.

이런 외국에서의 참가 열기에도 연등회 참가자들에게 불교문화를 알리는 후속과정은 다소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강문정 연등회 보존위원회 팀장은 "글로벌 서포터즈만 하더라도 연등회뿐만 아니라 사전 교육에서 불교문화와 한국전통문화를 배우는 과정이 있다. 이 과정에 대한 관심으로 참여하는 이들이 많다. 최근 연등회 참가자들의 면면도 유학생들에서 한국거주 직장인, 다문화가정 자녀 등으로 변하고 있어 불교 포교의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불교계 포교 단체들이 나서줘야 했던 부분인데 다행히 국제포교사회가 주도하게 됐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의 반응도 뜨겁다. 연등국제선원에서의 2차 템플스테이 후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타인 추천 의향'의 경우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한 긍정 의사를 밝힌 이들이 93.3%(매우 그렇다 60%)에 달했다. 한국문화와 불교전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내역도 '매우 그렇다'가 43.3%, '그렇다'가 50%로 긍정의사가 압도적이었다.

연등회 외국인 참가자 증가
불교문화 관심에도 관리부족
2차례 템플스테이, 열띤 호응

타인추천 의향 '93.3%' 달해
108배 · 염불 · 선수행 만족↑
"기관 협력, 국제포교 새 장을"

눈길을 끄는 부분은 불교문화에 대한 관심분야다. 명상, 포행 등 진행 프로그램 중 108배가 가장 만족도(27.8%)가 높았다. 향후 희망 프로그램도 발우공양과 사찰음식 만들기에 이어 염불수행이 꼽혔다.

이 같은 호응을 바탕으로 국제포교사회는 템플스테이 뿐만 아니라 연등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불교명상, 사찰음식 체험프로그램 등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용한 국제포교사회 템플스테이부장은 "연등회를 연결고리로 불교에 관심이 있는 재한 외국인들을 묶어 네트워크화 한다면 이들 중에 불교를 공부하고 싶어 하거나 또 신심까지도 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한국불교 세계화의 또 다른 부분인 만큼 유관 기관들의 관심과 도움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 비구니계의 원로이자 조계종 명사인 태허당 광우 스님이 7월 18일 오후 4시 5분 주석처인 서울 삼선동 정각사에서 법랍 80세, 세수 95세로 입적했다. 15살에 출가사문이 된 광우 스님은 법화행자로서 80년을 한결 같은 마음으로 정각(正覺)의 길을 걸었다.

'正覺의 길 80년' 광우 스님 圓寂

〈정각〉 〈원적〉

한국 비구니계의 원로이자 조계종 명사(비구의 대종사격)인 태허당 광우 스님(정각사 회주)이 7월 18일 오후 4시 5분 주석처인 서울 삼선동 정각사에서 입적했다. 법랍 80세, 세수 95세.

1925년 경북 군위에서 태어난 광우 스님은 15살 때인 1939년 직지사에서 성문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같은 해 남장사에서 혜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 수지했고, 1960년 서울 청룡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와 비구니계 수지했다.

광우 스님은 '불교계 최초'라는 수식어를 다수 소유한 한국 비구니계의 선구자였다. 1944년 최초의 비구니 강원인 남장사 관음강원을 1기로 나왔고, 뇌허 김동화 박사의 권유로 1956년 비구니 최초로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원로 비구니 스님에게 주는 조계종 최초의 명사 법계를 품서받았다.

광우 스님을 빼고 전국비구니회의 역사를 이야기 할 수 없다. 스님은 전국비구니회 전신인 '대한불교 비구니 우담바라회' 창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전국비구니회의 현재 위상을 있게 만든 장본인기도 하다.

광우 스님은 1995년 전국비구니회 회장으로 선출돼 8년간 비구니회를 이끌면서 120억원의 불사비가 투입된 비구니회관 건립을 완공했다. 스님은 임원들과 전국사찰을 순회하며 모금운동을 펼치는 등 전력을 다했다.

1958년에는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정각사를 창건하고 반세기가 넘게 도심포교에 진력하며 큰 성과를 거뒀다. 당시에는 보기 힘든 어린이 · 중고등학생법회, 대학생법회, 일반신도법회를 개설하고 매년 열흘씩 〈법화경〉 강설을 했다.



동국대 일산병원에 마련된 광우 스님의 분향소 영단.

18일 정각사서… 법랍 80세, 세수 95세
22일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영결식 엄수

전국비구니회관 건립 불사 완공 견인차
계층 · 정기법회로 도심포교 '새 장' 열어

정기법회를 열어 반향을 일으켰다.

황성기, 원의범, 홍정식, 김동화 박사 등 당대 최고 불교학자들의 강연을 듣기 위해 서울 소재 유수 대학의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이곳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훗날 지식인으로서 한국 사회 곳곳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다.

광우 스님은 평생 〈법화경〉 공부를 남달리 해온 법화행자다. 포교활동도 주로 〈법화경〉 강설로 했다. 스님은 1956년부터 10년간 부산 소림사에서 〈법화경〉 산림을 했다. 사숙인 금룡 스님의 당부로

정각사 창건 이후에도 〈법화경〉 수행은 이어졌다. 조석예불을 마친 뒤 반드시 〈법화경〉을 한품씩 읽기를 수행의 정업으로 삼았다.

1986년 〈묘법연화경〉을 번역출간하며 대학 도서관까지 법공양했다. 이 책의 특징은 독송할 때 운율이 잘 맞고 뜻이 명료하게 번역된 점이다. 또한 스님은 법화경 6만 9천 84자를 매일 기도하듯 사경했다.

15살에 출가사문이 된 광우 스님은 80년을 한결 같은 마음으로 정각(正覺)의 길을 걸었다.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힘쓴 선지식으로 많은 제자들과 불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왔다. 늘 조용한 웃음과 반듯한 몸가짐, 따뜻한 마음은 후학들의 귀감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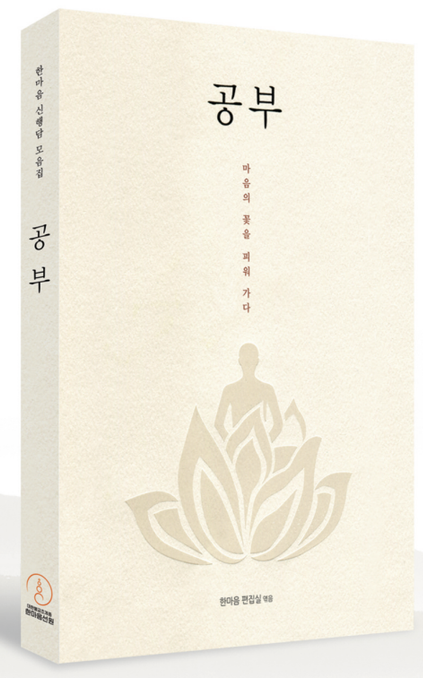
광우 스님은 지난 2009년부터 정각사 주지 소임을 상좌인 정목 스님에게 맡기고 오직 전법과 보림행에 힘써왔다. 그러던 중 고령으로 인한 미질을 앓아왔고 7월 18일 상좌 · 손상좌 등 문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후사를 당부했다. 그 후 "떠나는 바람은 집착하지 않는다. 그저 왔다가 갈 뿐이다"라는 열반게를 남기고 홀연히 원적에 들었다.

한편, 스님의 분향소는 동국대 일산병원에 마련됐으며, 영결식과 다비식은 7월 22일 오전 10시 30분 동국대학교 일산병원과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에서 각각 봉행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태허당 광우 명사 추모 특집 B1~3면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